

“콘텐츠·운영방식 당장 논의해야 국립 쏠문화전당 성공 합니다”

모철민 예술의 전당 사장 인터뷰

“많은 광주 사람들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개관하기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구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예측과 대비 없이 ‘우선 지어놓고 보자’고 하면 자칫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문화전당이 성공하려면 지금부터 콘텐츠는 물론 수익구조와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가 전개돼야 합니다.”

지난 4월 서울 예술의 전당 수장으로 취임한 모철민 사장(56)은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인 문화전당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지난 21일 예술의 전당에서 가진 40여 분간의 길지 않은 인터뷰였지만 아시아 문화중심 프로젝트는 물론 문화전당의 진척상황과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해 광주시민 못지 않은 관심과 우려를 내비쳤다.

그도 그럴것이 모 사장은 광주와 각박한 ‘인연’이 있다.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를 옮기기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수차례 광주를 방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챙겼기 때문이다. 당시 직접적인 문화전당 사업은 문광부 제2차관의 소관분야였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랜드마크에서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까지 ‘바람잡날 없었던’ 전당의 과거사를 꿰뚫게 된 것.



관광객들 접근성 떨어져

차별화된 볼거리 준비 필요

인 비율이 40%나 되지만 30%의 자생능력을 갖추는 데 여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콘텐츠와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올인하고 있어요.”

모 사장은 “광주에 위치한 문화전당은 파리의 퐁피두 센터와 달리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볼거리가 중요하다”면서 “문화전당이 국립기관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방문객들이 찾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밀박진 독에 물받는 격’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88년 문화부 산하 비영리 재단으로 문을 연 예술의 전당(총 부지 7만597평, 건축 연면적 3만6522평 규모)은 오페라하우스, IBK필하모닉, 한가람미술관, 디자인 미술관, 국립예술자료원 등의 문화공간과 장터, 놀이마당, 한국정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지난 2000년 특별법인(정부지원 30%, 자체수익70%)으로 지정됐으며 한 해 운영예산은 630억원, 관람객은 250만 명(2011년 기준)이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모철민은

▲성균관대 경영학과 ▲미국 오리건 대학 여가관광학과 석·박사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청와대 문화관광 비서실 행정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문광부 문화콘텐츠 산업실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문광부 제1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례회장

“지어 놓고 보자”하면 어려움 직면

개관전 수익구조 창출 머리맞대야

하지만 모 사장과 전당과의 인연은 그 보다 훨씬 이전인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2004년3월~2007년 9월)으로 재직하던 그는 한동안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들 손님 가운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부터 송기숙 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도 있었다. 문화전당의 모델로 퐁피두 센터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였다.

“노 전 대통령의 공약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첫발을 뜨면서 파리 퐁피두 센터를 찾는 ‘보신님’들이 많아졌어요. 의전에서부터 가이드 업무까지 한국 문화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퐁피두 센터의 직원들도 정신이 없었어요. 어쩌나 많이 찾아오는지 퐁피두 센터의 홍보담당자가 ‘내가 한국의 문광부 소속 직원이나고 푸념을 늘어놓을 정도였어요(웃음).’

당시 이들이 주로 관심을 보였던 건 퐁피두 센터의 건축설계와 컨셉이었다. 문화전당이 착공되기 전이었던 만큼 콘텐츠와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미처 들여다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퐁피두 센터의 콘텐츠와 컨셉에는 관심이 많지만 운영방식이나 재원구조에 대해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퐁피두 센터는 1년 예산만 1500억원(2004년 기준)이나 돼요. 프랑스 정부에서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자체수입으로 해결해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국립기관인 셈이지요. 한해 방문객이 2천만 명에 이르고 외국

“공공기관 지방대생 채용 30% 의무화”

이용섭 의원 “지방대발전특별법 제정”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이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은 22일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채용을 30%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방대학 육성은 학벌주의 타파·초중등교육 정상화·지역균형발전을 이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의 지방 명문대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대학에 대

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출신 대학 졸업생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이 제시한 민주당의 ‘지방 명문대 육성방안’에는 5급 공무원 선발시 지방대학 생을 20% 이상 선발과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 5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지방대 출신자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한의과 대학, 약학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일정 비율(50%) 이상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고, 각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이나 연구위원도 일정 비율 이상 지방대 교수로 충원한다는 내

용도 담겨있다.

이 의장은 이밖에 ▲내년에 우선 국공립 대학 반값 등록금 실시 ▲구조조정과 연계한 사립대학 반값 등록금 실시 ▲지방대학 교원 확보를 위한 조정 및 교수 처우 개선 ▲10개 거점 국립대학 대상으로 공학위계 단계적 실시 ▲대학평가시스템 개혁을 통해 건전 사학 적극 지원·육성 ▲부실·부패대학은 국공립대로 전환·정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방대가 특성화·명문화되고 대학이 지역 발전과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발전지원 특별법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대형마트 규제법” 정기국회처리 힘들 듯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무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22일 무산돼 이번 정기국회(12월9일까지)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진통 끝에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제2법안심사소위

는 이날 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의했으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도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오전 10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 합의로 지정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일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홍인화 시의원, 민주당에 쓴소리

민주통합당 소속 홍인화 광주시의원은 22일 “최근 당원의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놓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해당 행위’ ‘당원·당구 위반’, ‘강력한 징계’를 운운하며 당사자를 압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합의한 ‘새 정치’가 아니라 청산 대상인 ‘구태정치’의 전행이 아닐 수 없다”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연대에 합의하고 ‘새 정치’를 합의한 이상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를 당과 국민 후보로 인정해야 한다”며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길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광주 선거대책위원회를 22일 출범했다.

광주 선대위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광주시민과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이정희 대선 후보와 함께 노동자·농민·영세 자영업자들의 밑바닥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민중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주 동구의회 보선 조기준 공천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제18대 대선과 함께 치러질 동구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 후보로 조기준 예비후보를 공천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조 후보는 투명한 행정, 의료서비스 마스터플랜 등으로 노인 복지 증진 및 의료소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조 후보는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 서남동 협의회장으로 활동중이다. /최권익기자 cki@



통합진보당 광주선대위 출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정희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상가,단독주택,원룸,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모집, 납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정중지, 입야대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부동산, 투자, 경매, 관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밀)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신평면 매성리 354-32

이지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 ▶ 담양군 담양읍 화동리 밤나무밭 1만평 P당 3만원
- ▶ 광주 신기지구 일반산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 장성 백암사입구 모텔 및 식당(성업중)대800P, 매가118억
- ▶ 영광군.읍.자동차정비공장20년간운영.자동차검사장등.매가6억
- ▶ 화순 이양면 초창리 임(77,727㎡,23,512평)매가1억
- ▶ 광주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1천4백P.2천5백P, 2만P등(각종 공장 및 기타사용 가능)
-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가24억
-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가1억3천만
-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421P,매가3400만
- ▶ 오지동 3층(신축)가주택 매11억(용.보5억5천5천)월수6백만
-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전200P.참고.공장.주택등.매가1억
- ▶ 광산구 우산동 4층원룸 매가16억 월수 6백만.
- ▶ 영광군 흥농읍 주유소. 대지460평 매가5억
- ▶ 북구 중흥동 원룸3층원룸 매가4억 월수 250만(인접별도)
- ▶ 장성군 북하면 백암사입구 주유소.대지919㎡, 매가 4억5천만
- ▶ 장성군.읍.덕진리 대포면.전답.임야등10,100P, 매가 P당15만
- ▶ 광주 오치동 아파트밀집지역내 5층상가.대166P.매가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 월강공방부지1~3천평 (담양 대전면부근.8M이상도로접)
- * 담양. 봉선면부근 공장부지3천평(대형차량정기가능)
-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등)
- * 광주시내 수익성있는 상가건물3~18억선
- * 광주.첨단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 전남.전북일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 도로여건 및 경관좋은임야 1만평이상
- * 원룸 신축부지(광산구 산정동 및 신가.하남.첨단지구등)

기타물건다량보유 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기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명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명동랜드피아 O/P 1층)

급매 상가/원룸

-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원세794만
- ▶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 투룸 4개
- ▶ 토지면적 : 330.58㎡ (100p)
- ▶ 건축면적 : 737.19㎡ (223p)
- ▶ 매가6억9천(용지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억9천9백만 대출이자 월 122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2만원 년수익률 20%. 편 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 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 011-684-3886

모텔 매매

- ▶ 아시아문화전당 전대방 원룸근
- ▶ 토지 89P 건물 233P
- ▶ 5층 객실21개 지하 노래 홀 엘리베이터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완비 최근 리모델링 완료
- ▶ 매가 4억9천 용지 2억3천 5백 실투자액 2억5천5백

문의 : 011-684-3886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대지 : 5,048㎡
연건평 : 2,474㎡
객실 : 32개
현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연전 급매

해남 연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영일분 손님을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어드리겠습니다.
(FAX)223-1172 핸드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정동 대인동 소정서면2번)